이안의 Media In Buddha ❻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광부화가들〉



▶한줄요약

11월 4일 221시간만에 구조된 봉화 광부의 기적 같은 생환은 동체대비 발원의 드라마였다. 광산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광부화가들〉도 동체대비의 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작들이다.

예술하는 광부에게서 동체자비를 본다

참사, 전쟁, 질병, 기후재앙, 경제시장 폭락 등 궂은 일이 잇달아 벌어진 2022년이었다. 암울하고 참담한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가슴 에이게 한 일은 이태원에서 하룻밤에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같은 시기에 봉화에서도 목숨이 걸린 사고가 있었다. 수백 명이 휘하게 불빛 비치는 거리를 지나다가 당한 사고와 달리 봉화의 사고는 깊은 산골, 그냥 산골도 아니고 땅을 깊이깊이 파고 내려간 갱도가 무너진 아래 두 분의 광부가 며칠 째 매몰되어 있다는 소식이었다.

광산은 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곳이다. 봉화 광산에서는 사실 여름부터 조짐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 며칠 전에 두 광부는 무너진 갱도 아래 갇혀 있었다. 사고 소식과 구조 상황이 뉴스에 나오긴 했어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다. 외진 곳이기도 하고, 사고 인원이 많지 않아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다보니 그런 사고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단신으로 다룬다 해도 대중들이 뉴스 자체를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소식에 대중들은 뉴스에 집중했고, 눈과 귀를 열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뉴스 앞에 모인 대중들은 봉화 광부들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무사하게 구조되기를 빌고 또 빌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월 26일,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들 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 날이 11월 4일, 무려 221시간이 지나고서였다. 이 생환 소식은 '기적' 과도 같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살리고자 하는 노력,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생환에 대한 발원을 함께 세운 날들. 두 광부의 생환은 바로 '동체대비(同體大悲)' 의 지극함에 대한 응답과도 같았다.

'동체(同體)' 는 한 몸 또는 같은 몸이라는 뜻이니 남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부처님은 마치 자기 몸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뜻으로, 뭇 중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앞에서 나와 남 사이에 추호의 타산이 없이 사랑과 연민을 한껏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가르침이다.

서로 다투고, 겨루어 남보다 나은 자리와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인간사에서 동체대비의 순간은 흔치 않다. 봉화 광부 두 분의 생환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흔치 않은 경우가 실현되는 기적이었다.

광부는 도시가 아니라 광산이 있는 지역에 모여 산다. 자원이 묻힌 곳은 대개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광산촌이라고 한다. 광산일은 장비며 기술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 빛이 미치지 않는 땅 속이 일터인데, 이 일터는 사람이 자원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깊숙한 곳으로 길을 내야 한다. 고되고 험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광부의 일터를 '막장' 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



연극 〈광부화가들〉의 한 장면.

땅 위에서 사는 존재인 인간들에게 땅속이 위험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다. 금이나 보석을 탐하는 정도를 넘어 인류의 문명에 광산이 중요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다. 대량생산과 도시화, 공장과 공산품의 시대가 되면서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사회의 그늘을 드러내는 소설이나 영화에 광산촌과 광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처지도 일터만큼 낮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강한 동료애와 소속감으로 뭉쳐있는 광부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그려지는 광산지역과 광부에 대한 묘사는 영국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0년, 스티븐 달드리 감독), 한국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2004년, 류장하 감독)과 같은 작품들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중반, 영국의 광산촌이 배경이다. 대처 정부가 20여 곳의 탄광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전역에서 광부 노동조합이 총파업으로 맞서던 시기다.

영화의 주인공은 광부의 어린 아들 빌리(제이미 벨). 파업에 앞장 서는 빌리의 아버지인 재키 엘리어트(게리 루이스)는 남자는 강해야하고, 강한 사람이 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어른이다. 막내아들 빌리를 어려운 살림에도 돈을 마련해 체육관 권투 교실에 보내는 건 앞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는 어른이 되려면 마땅히 힘을 키워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빌리는 권투 대신 여자 아이들이 배우는 발레 수업에 매혹된다.

아들이 권투 대신 몰래 발레 수업의 유일한 남자 교습생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에게 빌리가 아무리 "발레 무용수는 운동선수만큼 단단하다. 웨인 슬립(영국의 유명 무용수)도 단단하다"고 주장한들, 발레 선생님이 빌리는 대단한 재능을 타고 났다고 설득하든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980년대 영국 광산촌 배경으로
발레리노 꿈꾸는 빌리 성장 그려
과정서 이웃들 '동체대비' 보여줘
노동자 예술 그려낸 '광부화가들'
예술 통한 자기 정체성 찾기 확인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춰 보이는 아들의 간절한 몸짓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든다. 목숨 걸고 권투든 뭐든 승부를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힘과 의지를 보일 수 없을 만큼 결연한 빌리의 춤은 아버지에게는 존재를 뒤흔드는 시련이다. 취미를 넘어서는 재능 앞에서 기뻐하기에는 발레라는 건 단지 '남성은 권투, 여성은 춤' 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을 감당해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 뛰어난 재능을 살려주려면, 탄광촌 발레 선생님이 수업료 없이 가르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열 발레 학교 정도는 가야 한다는 데, '로열' 이라는 건 광부 살림으로는 어림도 없이 비싸다는 뜻이고,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입학시험을 보는 것만도 광부 살림으로는 턱도 없는 비용이 든단다.

동네 발레 수업료도 감당하기 벅찬 형편인데다가 파업으로 당장 쪼들리는 상황에서 아들의 꿈, 아들의 재능, 아들의 의지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지금껏 파업을 함께 해 오면서 일터로 돌아가는 동료들을 '배신자' 라고 비난해 왔는데, 아들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갱도 앞에 선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마침내 이웃들이 알아주고, 다들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백짓장 맞들 듯 빌리의 입시 비용을 모아주는 마음이 곧 '동체자비' 의 정신이요, 실천이다. 그 동체자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치열한 예술로 갚을 수 있을 뿐이다. 영화가 시작할 때 침대 위에서 뛰어 오르던 빌리가, 탄광촌 체육관에서 권투 대신 발레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던 빌리가, 시험장에서부터 광산촌 출신이라고 업신여기는 시선을 무릅쓰고 갱도대신 발레를 선택한 빌리가 마침내 백조가 되어 무대 위를 날아오를 때, 아버지와 탄광촌 이웃들 모두는 함께 날아오른 것이고, 함께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실화다.

영화에 이어 뮤지컬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인 리 홀의 다른 작품인 연극 〈광부화가들〉 또한 눈여겨볼만한 작품이다. 극단 차이무 출신 배우들이 지금 한참 무대에서 열연하고 있는 이 연극에는 '광부의 아들' 이 아니라 '광부들이 직접' 예술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과 의미와 가치를 묻고 보여준다.

강신일, 박원상, 김중기, 문소리 등 스크린에서 잘 알려진 연기자들이 연기의 합을 맞추는 〈광부화가들〉은 1930년대 영국 동북부 뉴캐슬의 탄광지대 애싱턴 지역의 광부 예술가 집단의 실화를 무대에 올린다. 지역 노동조합 소속 광부들이 매주 모여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미술감상수업' 을 해보기로 하면서 막이 오른다.

평생 미술관 한 번 가본 적 없는 광부들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며 미켈란젤로든 별 감흥이 없으니 미술감상수업을 맡은 강사 라이언은 난감하기만 하다. 유명하다는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실제 작품으로도 아니고 노조 회관에서 슬라이드로 보여주려던 수업 대신 차라리 광부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보기로 하면서 광부들만이 아니라 강사인 라이언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광부들이 그리는 세상은 그리스 신화나 성서 이야기, 아니면 궁정에서 노니는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다. 바로 광부들 자신과 이웃의 모습이다. 좁은 갱도에서 일하느라 잔뜩 몸을 굽힌 노동자 자신, 바람 부는 세상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자신들의 모습.

실제로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한 '애싱턴 우드혼 탄광 노동조합 미술감상반' 은 '애싱턴 그룹(Ashington Group)' 이라는 미술동인의 이름으로 여러차례 전시회를 열고, 강연회에도 초청 받으며 미술계에 새로운 시선과 방식으로 광부의 예술, 노동자의 예술을 알렸다.

이들 가운데 누구는 더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고, 누구는 더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그래서 그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올리버(강신일, 박원상 분)가 뛰어난 안목을 가진 부유한 미술 수집가 헬렌(문소리, 송선미 분)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기회를 제안 받았을 때, 그는 독립적인 화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광부의 아들로서 성공한 화가가 된 조르주 루오처럼 부귀와 영예를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리버는 광부 동료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한다. 더 이상 광부가 아닌 '예술가' 로 성공하는 것보다 '노동자 자신의 예술' 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광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광부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예술성을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연극 내내 무대를 채우는 실제 인물들의 사진과 그들이 그려낸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대중들 모두에게 생환이라는 기적으로 감동을 전한 봉화 광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갱도 안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갱도 밖에서는 반드시 자신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리라는 믿음, 동체자비로 모든 이가 고난을 함께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내 이 기적의 감동이 함께 하기를.

〈영화평론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